



음료선물세트는 가격부담이 적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 매년 명절 선물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추석 을 앞두고 델몬트 주스세트, 칸타타 원두커피 선물세트 등을 선보였다. 일한 내용 구성은 물론 명절분위기를 듬뿍 담은 포장재가 눈길을 끈다.

# 롯데칠성음료 선물세트로 한가위에 고마움 전하세요

올해 추석선물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음료선물세트가 어떨까.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가 2014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음료 및 원두커피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온 가족이 좋아하는 '델몬트 주스 추석 선물세트'는 9000원에서 1만 3000원대의 부담 없는 중저가 세트이다. 명절 분위기를 담은 고급스러운 포장재를 사용해 전하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을 준다. 델몬트 주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201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주스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델몬트 주스는 1999년부터 16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 '골든브랜드'로 명명됐다. 2010년에는 종합음료업계 최초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델몬트 플드 오렌지·포도·사과', '델몬트 프리미엄 오렌지·포도', '델몬트 오렌지주스 100' 등이다.

델몬트 병 선물세트는 명절마다 인기 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성했다. '프리미엄 오렌지·포도·사과 3본입 세트', '제주감귤 100%'를 사용해 제대로 된 감귤주스의 맛을 낸 '제주감귤주스 세트', '프리미엄 오렌지 주스만'으로 구성된 '오렌지주스 세

트' 등이다. 1.5L페트는 고급 보석함과 전통미를 살린 보자기모양의 선물 포장박스에 담긴 '혼합4본 세트'가 있다.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델몬트 소병 12본 세트' 2종도 명절분위기를 듬뿍 담은 포장재로 인기 물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델몬트 주스 추석선물세트  
주스 부문 16년 연속 선두  
고급 포장·부담 없는 가격

●칸타타 원두커피 선물세트  
인기 품목 최대 30% 할인  
어디서든 카페분위기 연출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카페 분위기 연출  
'칸타타 원두커피 선물세트'는 다양한 구성과 가격으로 커피 애호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칸타타 원두커피는 생두 공급부터 로스팅,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컴퓨터 통합 관리 생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롯데 포승공장에서 완성된다. 엄격한 선별 기준과 6단계의 이물선별 작업을 통과한 최상급 100% 아라비카 원두만 사용해 만들어졌다.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는 카페칸타타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원하는 제품으로 선택해 구성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칸타타 원두커피의 구성품 선택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1만원대에서 7만원대의 다양한 가격으로 몇 가지 구성을 미리 해놓았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물가 시대의 주머니 속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기품목을 기존 판매가에서 10~3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칸타타 원두커피에 프렌치프레스가 내장된 세트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카페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간편하게 원두커피를 추출해 즐길 수 있다. '원두커피+그라인더 세트'는 커피를 추출할 때마다 소량씩 그라인딩을 한다. 그만큼 신선한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커피 애호가를 위한 선물로 제격이다.

이 밖에도 고급 추출방식인 핸드드립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드립커피세트 3종,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즐길 수 있는 티백 타입의 싱글백 세트 2종 등이 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정통 원두커피의 참맛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원두커피를 만드는 과정이 번거로운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양명호 기자 ranni@donga.com 트위터@ranni361

## 강원랜드 '공기업 합리화' 노사 합의

1인당 복리후생비 439만원으로 축소

1999년 설립 이후 첫 파업이 발생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강원랜드 노사가 8월 29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강원랜드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610만원에서 439만원으로 28% 감소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상화 방안이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상화 방안이

강원랜드는 이날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18개 항목에 대해 노조와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사합의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지원, 정년 퇴직자 직원 채용 등을 폐지하고, 통상임금 할증, 입차 수

소관리비 지원, 경조사 휴가 기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면 강원랜드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610만원에서 439만원으로 28% 감소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상화 방안이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상화 방안이

강원랜드는 공기업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후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노조와 협의의 했으나 강

한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들이 속속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노조는 8월16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파업을 실시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하루만 진행된 경고 파업이었지만 호텔과 카지노 업무가 큰 지장을 받고 고객 행위가 쏟아지는 등 후유증이 컸다. 하지만 노조가 8월16일 파업에 이어 예고했던 27일과 28일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집중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 이틀을 남기고 전격합의를 이루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kobaukid

##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부금 7억원 돌파

가수 선 시작으로 7000여명 동참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으로 승일희망재단에 7억원의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일희망재단의 공동대표인 가수 선은 31일 "약 7000명이 승일재단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부금에 동참했다.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작은 정성들이 모여 7억

원 규모의 기적을 만들었다. 국내 첫 번째 루게릭 요양병원이 하루빨리 건립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은 YG패밀리와 함께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선의 부인인 텔런트 정혜영은 8월27일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미국루게릭병협회(ALS)가 6월 제안

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자신에게 부으면 다른 사람 3명을 지목할 수 있다. 지목을 받은 이는 24시간 안에 자신에게 얼음물을 붓거나 100달러를 지정된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다.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 등 명사들이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선 선이 8월18일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시발점으로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김재혁 기자

## 애플 vs 삼성 vs LG...엘리어답터는 즐겁다

올 가을, 신형 스마트기기 전쟁

아이폰6·갤럭시노트4 공개 임박  
신형 웨어러블 기기도 속속 공개  
애플 '아이워치' 베일 벗을지 관심

올 가을 엘리어답터들은 설렌다. 3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9월 중 다양한 신규 스마트 기기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아이폰6'과 '갤럭시노트4'를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폰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다음 격전지인 '웨어러블(입는)' 시장을 겨냥한 새 제품도 베일을 벗는다.

●'아이폰6'냐? '갤럭시노트4'냐?

9월 초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두 강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새 제품을 나란히 공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대화면 플레그십(주력) 라인업인 '갤럭시노트'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4'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9월3일(현지시간) 연례 행사를 개최한다. 미국 뉴욕과 중국 베이징에서도 동시에 열린다.

업계에선 이날 '갤럭시노트4'가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노트4'는 5.7인치 쿼드HD 디스플레이를 달고, 1600만 화소 후면카메라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곡면 디스플레이를 달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LG전자, 소니와 함께 중국 기업들도 IFA에서 신제품 스마트폰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갤럭시노트4'의 흥행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애플이 그동안의 고집을 버리고 대화면을 적용한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 때문이다.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9월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아이폰6'을 공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아이폰6'이 4.7인치 대화면을 장착하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5.5인치 화면의



올 가을에는 스마트기기 업계들의 화려한 한판승부가 벌어질 듯하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기다려 온 '아이폰6'과 '갤럭시노트4'가 9월 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제품을 공개하며 이슈 선정경쟁에 나섰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S'.

패블릿(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합성어)도 함께 공개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웨어러블 경쟁 2라운드 돌입

웨어러블 기기 경쟁도 준비돼 있다. 이미 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나란히 신제품을 공개하며 이슈 선정 경쟁에 나섰다. 두 회사의 제품은 'IFA 2014'에 전시될 예정이다. 먼저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S'를 공개했다. 지난해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며 포문을 연 삼성전자의 6번째로 손목형 웨어러블 제품이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쓸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을 때도 3G 이동통신, 와이파이가 등의 통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2인치 원(커브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를 탑재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블루투스도 연동해 통화하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목걸이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 서클'도 함께 공개했다. 제품은 10월부터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LG전자는 'LG G 워치R'을 최근 공개했다. 스마트워치로는 최초로 원형의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이 특징. 출시는 4분기 초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아이워치'도 그 모습을 곧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겨 '아이폰6'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함께 공개될 것이라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헬스케어 기능 등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디아블로3, 시즌별 최강자에 도전하라

확장팩 첫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  
더 큰 보상 걸린 '대균열' 모드 추가



인기 게임 '디아블로3(사진)'가 또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3'의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 출시 후 첫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최근 단행했다. 새롭게 적용된 '2.1.0' 패치엔 흥미로운 신규 콘텐츠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시즌' 시스템이 추가됐다. 유저들에게 주기적으로 새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시즌에서 획득

할 수 있는 전설 아이템이 업데이트됐다. 이 밖에도 시즌에만 제공되는 업적 시스템 '정벌'과 시즌 활동에 대한 진척상황이 반영되는 '순위표'를 통해 경쟁의 재미도 만끽할 수 있다.

'내팔뚝의 차원 균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대균열'도 추가됐다. 목표는 각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호자를 처치하는 것. 도전에 성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전설 보석이 주어지고, 이를 활용해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히 전설 보석에는 한국 테마 아이템인 태극과 미리내, 신속의 곡옥 등이 포함돼 국내 게이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아블로3' 공식 홈페이지(kr.blatt.net/d3/ko/)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명근 기자



밀레, 탑·박신혜 F/W 화보 공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가 F/W(가을/겨울) 시즌 테마를 '뉴 웨이브'로 정하고 전속모델인 탑과 박신혜의 화보(사진)를 공개했다. 이번 F/W 시즌은 지난해 밀레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세바스찬 부페이가 참여한 첫 시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시즌 테마인 '뉴 웨이브'는 새로운 흐름을 뜻한다. 밀레 제품의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 국내 아웃도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이다. 지나치게 화려한 배색이나 복잡한 디자인 대신 심플하면서도 깊고 풍부한 색상이 돋보이는 제품을 선보인다. 버건디, 그레이 등 채도가 낮은 솔리드 컬러와 절개를 최소화한 디자인에 유려한 감성을 더할 계획이다.

친절한 대한민국 홍보대사에 주상욱

한국방문위원회는 '친절한 대한민국 캠페인' 홍보대사로 배우 주상욱을 선정했다. '친절한 대한민국 캠페인'은 한국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친절한 대한민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한국방문위원회의 연중 캠페인이다. 한국방문위원회측은 "주상욱씨는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와 이미지로 '친절한 대한민국 캠페인'과 잘 어울려 선정하게 되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9월2일 열린다. 편집 | 김재환 기자 bong2@donga.com 트위터@bong2

## 평일·오전 11시·대출권유 가장 많다

KTCS, 스팸차단 앱 '후후' 분석

스팸전화는 주말보다 평일, 하루 중 오전 11시에, '대출권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IT서비스 계열사 KTCS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스팸차단 앱 '후후'에 접수된 스팸전화 신고 2213만2326건을 시간, 요일, 스팸 유형, 시기별로 분석한 통계수치를 31일 공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주말보다 평일에 스팸전화 신고량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스팸전화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은 오전 11시였다. 이 때 접수되는 스팸신고 건수는 1일 평균 6514건으로 시간대별 평균

(2674건) 대비 두 배를 넘었다. 스팸전화 유형별로는 '대출권유' 전화에 대한 스팸신고가 총 482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게임 및 도박(278만건), 텔레마케팅(263만건), 휴대전화 판매(261만건), 성인 유희업소(247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기에 따라 신고량이 급증하는 유형도 다양했다. 설 명절이 있던 1월과 휴일이 많았던 가정의 달 5월에는 불법게임과 도박 관련 스팸신고가 급증했다. 2월 전화영업금지조치로 인해 대출권유 스팸신고는 전달 대비 24%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리운전 관련 스팸신고는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재혁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